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배포일시 | 2020. 12. 28.(월) 17:00 (총 3매) | 보도시점 | 즉 시 |
| 담당부서 | 청주 기상지청 관측예보과 | 담당자 | 과장 신 언 성 전문관 김 순 |
| | | 전화번호 | 043-272-0365 |

충청북도 연말연시 강추위

- 12월 29일 밤~1월 1일 매우 추운 날씨, 건강관리·수도관 동파 유의
 - 충북북부 중심 체감온도 - 20℃ 안팎, 1월 초순 강추위 지속
- 12월 29일 오후부터 밤까지 충북지역 비 또는 눈, 빙판길 유의
 - 예상적설(29일): 1~3cm



[12월 30일 오후 예상기압계 모식도]

- 청주기상지청(청장 이경희)은 내일(29일) 오후부터 밤까지 충북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린 후 연말연시(30일~1월 1일) 동안 강한 한파가 나타나겠으니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.

예상적설(29일)

- 충청북도: 1~3cm

[기압계 전망]

- 청주기상지청은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충북지역에서는 12월 29일(화) 밤부터 내년 1월 1일(금)까지 강한 한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.
- 29일 밤부터 대륙고기압에 의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하고, 12월 30일(수)~1월 1일(금)은 5km 상공에 - 30℃ 안팎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추위의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분석했다.
- 이후, 1월 2일(토)~3일(일)은 찬 공기의 유입 강도가 다소 주춤하겠지만, 4일(월)부터 다시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1월 초순에도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.

[추위 전망]

- 29일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여, 30일~1월 1일의 아침 최저기온은 충북중북부 지역은 -15℃ 안팎, 충북남부지역은 -10℃ 안팎을 보이면서 강한 한파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.
- 특히, 30일은 충북지역의 최고기온이 -6℃내외에 머물고, 31일(목)은 아침 최저기온이 청주 -11℃, 충북중북부지역은 -15℃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매우 추운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.
- 또한, 이 기간(12. 30~1. 1.) 동안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5~10℃ 가량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,
-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함은 물론 선별진료소 등 야외 업무 종사자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권고했다.
- 1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의 유입 강도가 다소 주춤하면서 일시적으로 추위가 약해지겠지만, 4~5일부터 다시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고, 이후에도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다.
- 청주기상지청 예보관은 “추위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건강관리와 함께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비닐 하우스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대한 유의도 필요하다”고 당부했다.